마이디팟 웹소설 투고 시놉시스 양식

라떼북(로맨스), 페이즈(BL), 다카포(로판)

작품명	시한부 소꿉친구를 두고 죽었더니 최종보스가 되었다		
보낼곳	info@mydepot.co.kr		
장르 및 수위	로맨스 판타지/15세 이용가	필명	모로모로빔
희망 출간 방향	카카오페이지	연락처	010-7457-9179
희망 인세율(%)	7:3	희망 선인세(원)	-
예상 완결 분량 (공백 미포함 기준)	60만자		
키워드	#집착남주 #병약남주 #구원튀 #재회물 #햇살여주 #흑화남주 #소꿉친구 #쌍방구원		
무료연재 여부	https://www.joara.com/book/1853050?fecheckmode=null		
작가 이력	-		
기타 요청사항	-		

로그라인 / 기획 의도

"나를 살리기 위해 괴물이 된 소꿉친구, 그를 죽여야만 하는 성녀로 눈을 뜨다."

본 작품은 100년 전, 짝사랑하는 소꿉친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와 계약하여 괴물이 된 남주인공과, 죽음 이후 100년 만에 성녀로 각성하여 다시 눈을 뜬 여주인공의 재회를 그립니다. 서로에게 구원인 동시에 파멸이 되는 빛과 어둠이라는 상극의 설정을 통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식욕과 집착이 뒤섞인 긴장감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보호받는 성녀라는 클리셰를 탈피하여, 회귀 전의 기억과 압도적인 배짱으로 도리어 괴물들을 발밑에 꿇리는 주체적이고 강렬한 여주인공을 통해 장르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작품 소개

로즈센트 가의 공녀 아리아는 시한부인 소꿉친구 노엘이 있다. 노엘은 악마와 계약해 강인한 육체와 힘을 손에 넣지만 성력의 힘을 각성하기 시작한 아리아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자, 인간성을 버리고 폭주한다.
그로부터 100년 후, 성녀로 각성해 다시 눈을 뜬 아리아에게 내려진 임무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최종 보스'를 토벌하는 것.
하지만 그 괴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과거의 소꿉친구이자 연인인, 노엘이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괴물이 된 남자를 죽여야 하는 가혹한 운명. 아리아는 성녀로서의 차가운 의무와 그를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 사이에서 진정한 구원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캐릭터 소개

여자주인공-아리아 로즈센트: 국왕의 손녀이자, 로즈센트 가문의 유일한 공녀. 성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100년 후 성녀로 각성하여 다시 눈을 뜨게 된다.
남자주인공-노엘 아셴: 어릴 때부터 병약했지만 악마와 계약하고 강인한 육체와 힘을 손에 넣

는다.

줄거리(구체적으로)

[기] 로즈센트 가의 공녀인 아리아에게는 병약한 소꿉친구, 노엘이 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노엘에게 아리아는 유일한 세상이자 빛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유년 시절을 보낸다.
하지만 아리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국왕과 공작 부인이 잇달아 사망하며 가문의 실권을 쥔 아리아의 오라버니는 아리아를 악명 높은 바르안 후작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노엘은 무력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다 결국 아리아를 구하기 위해 악마와 계약하여 인간성을 버리고 '포식자'로 다시 태어난다.
괴물이 된 노엘은 결혼식 전날 아리아를 구출해 도피하지만, 뒤늦게 성녀로 각성한 아리아와 포식자인 노엘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극이 되어버리고, 결국 100년의 긴 이별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

[승] 100년 만에 성녀로 눈을 뜬 아리아는 자신을 '인간 결계'로 가두려는 신전의 구속을 피해 성기사단장 미하일과 계약 결혼을 맺고, 세상을 위협하는 포식자들을 막기 위한 임무에 동참하기 위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시장에서 사고를 당한 아리아는 '빈민가의 성자'라 불리는 의사 테오도르에게 치료를 받으며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사실 그의 정체는 100년 전 소꿉친구이자, 최초의 포식자인 노엘이었다.
노엘은 아리아를 독점하기 위해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짓말과 편지 위조로 그녀를 고립시키지만, 결국 거짓이 탄로 나며 아리아는 그가 선물한 붉은 목걸이만을 간직한 채 다시 미하일의 곁으로 돌아가게 된다.

[전] 본격적으로 포식자 토벌 임무에 뛰어든 아리아의 뒤를, 그림자 속에 숨은 노엘이 집요하게 쫓기 시작한다.
위태로운 인간성과 악마의 본능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노엘은, 결국 아리아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하기로 결심하고, 아리아를 100년 전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낡은 성으로 데려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꾸며진 완벽하고도 고립된 낙원 속에 그녀를 가둔다.

[결]
심연의 왕이 노엘의 육신을 문으로 삼아 태초의 혼돈을 불러오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아리아는 어둠을 없애는 대신 그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
성녀의 희생적인 포용에 닿은 순간, 분노로 들끓던 심연은 태초의 고요한 '안식의 왕'으로 회귀한다. 이해받지 못해 날뛰던 어둠은 비로소 아리아의 빛 안에서 위로를 얻고, 노엘의 몸을 떠나 영원한 잠으로 돌아간다.
그제야 걷힌 광기 너머로 진실이 드러난다. 지난 100년간의 참혹한 파괴는 노엘의 의지가 아닌, 그를 잠식했던 심연의 폭주였음이. 세상은 재앙을 불러온 것이 그가 아니라, 오히려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거대한 재앙을 억누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저주받은 영생의 고리가 끊어지고 다시금 부서지기 쉬운 필멸의 육체를 되찾은 노엘. 세상은 악마를 제 몸으로 막아낸 그를 '살아있는 성소'라 칭송하며, 두려움 대신 경외와 깊은 용서를 보낸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던 두 연인은 마침내 같은 속도로 흐르는 시간 위에 나란히 서게 된다.함께 늙어가고 언젠가 함께 눈 감을 수 있는 유한한 삶을, 신이 허락한 축복으로 여기며 생의 황혼을 향해 걸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